

보도해명자료	보도일시	2014년 5월 9일(금) 배포시
	담 당 자	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157, kst@kdi.re.kr)
	배포일시	2014년 5월 9일(금) 12:00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매일경제신문 9일자, 「내수 침체로 성장 추락 - KDI 올 성장전망 0.2%p 낮춰」 등 보도 관련 해명

〈보도 내용〉

- 매일경제신문은 KDI 5월 경제동향자료를 인용한 해당 기사에서 KDI가 올해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전망치를 0.2%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처럼 보도
 - KDI 관계자가 “1분기 지표와 2분기 소비 부진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”고 언급한 것으로 인용

〈KDI 입장〉

- KDI는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가 전혀 없으며, 5월 말 발표 예정인 전망치를 언급한 바가 없음.
 - 연구자는 인터뷰에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하나 수출 등 여타 요인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월 말 발표 예정인 경제전망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힘.